



謹賀新年



관음진신 상주처 통해 낙산 일출.

신년법어

불퇴전의 정진, 대승보살행 실천



효강 종령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래 무시무종이라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으나 사바 중생들에게는 새해를 맞는 마음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의 묵은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일 일 것입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새로운 각오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만 막상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서 허탈해 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물러서지 않는 부단한 정진이 없었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종조 원정 대승사님은 일찌기 "대승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이 아니며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재로 인격화할 수 있

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성신(五相成身)의 불퇴전의 각오로써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음으로 불도를 닦아 나아가는 정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와함께 생생한

인생 현장에서 갖가지 경계를 극복하며 펼쳐는 대승보살행을 당부하신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는 정진과 대승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조 탄신 100주년과 창종 35년 등 종단의 중요한 일들이 있는 해입니다. 종단과 종도 모두는 이러한 일들을 원만하게 수행해 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신여래와 관세음보살의 광명과 자비가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도합니다.

종조 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행사 다양

불교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을 맞는 올해 종조탄신기념대법회와 종조유필원고 발간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종조 관련 기념예술품과 학술세미나 등 원정 대승사의 생애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창종 35주년 기념사업은 사경대회, 독경 및 진언연승 경연대회 등 종단 홍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총지종은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포교 활성화를 기하고 종단 역량을 강화하여 종단중흥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지난 2004년 종조전 개관 당시 모습.

총지종은 올해 종조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오는 1월 29일 종조 탄신일에 맞춰 종조탄

신기념대법회가 병행하는 것을 필두로 종조유필원 및 사진전 개최, 종조 유교집 <유마경> 발간, 종조 관련 학술 세미나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및 테이프 등을 제작 배포하여 명상이나 요가 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 개발에 접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종조탄신기념 예술

제, 합창제 또는 전국찬불가경연대회 등을 마련, 대중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창종 35주년 기념사업은 주로 종단 홍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종단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유바라밀다심경, 등 경전사경대회를 전국의 각 교구별로 개최하고, 경전독송 및 진언연승 경연대회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 종조유필원보집 제작과 종조 유필원고 총지교전(가칭) 발간 등이 계획되어 있다.

통리원 사무국장 법경정사는 "이번 사업은 종조님의 유지를 계승 발전함과 동시에 종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포교의 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웃 위한 자비실천도 함께 하길”

창교절 법회 봉행

불교총지종 총지사는 구랍 12월 24일 서원당에서 창교절법회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창교절 유시문에서 "수행과 교화가 상보적인 관계속에서 발전하여 종단내에 확고히 자리잡을 때 우리 종단의 발전도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며 "수행과 교화가 보다

철저하고 다양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구와 시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정예하는 또 "종조님께서는 창종 이래로 늘 보살도를 강조해 왔다"며 "창교절을 맞아 이웃의 고난을 덜어주는 자비행 실천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대중불사 법요와 유시문 낭독, 동참불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회 후엔 창교절 기념케익 절단과 윷놀이, 어린이 자성학교 축하행사 등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식후 행사를 주관한 신정희 김은숙 회장은 "조출하지만 원정 대승사님의 창교정신과 유훈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신정회 일동은 앞으로도 종단발전에 헌신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달의 종조법설

화(禍)와 복(福)이 다 모두 인연에 있는 것이고, 친소(親疎)도 또한 인연에 있는 것이다. 복(福)도 홀로는 안되는 것이고 화(禍)도 홀로는 안되는 까닭이다. 성긴 것이 도리어 친해지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볼 때 모두가 연을 짓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육행(六行)이 다 이에 있는 것이다. 대업(大業)이 성취되는 것도 다 이에 있는 것이고, 열반의 저 언덕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지종 불단 중앙에 음미반매혹 본존, 오른쪽 태장계 만다라는 종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며 생명 성장과 탄생을 의미한다. 왼쪽 금강계 만다라는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교도 여러분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 총지종!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윤원대도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승단은 엄격한 계행과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종령 효강

중앙총의회의장 원송

법장원장 법공사감원장 지성

교육원장 화령

서울경인 교구장 연등원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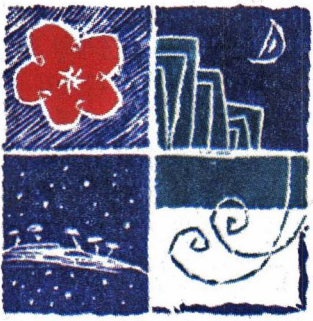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풍경소리

날마다 좋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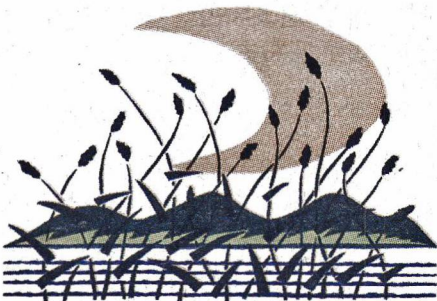


전작 | 고탐 정병래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달 밝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 무문선사

진정한 지혜인



전화 / 남궁산



전화 / 남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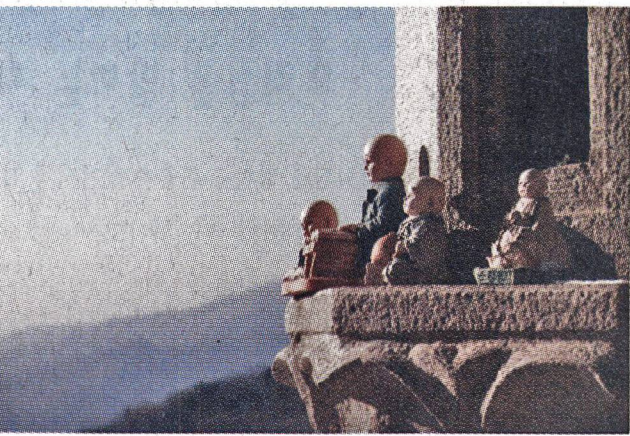
물감을 허공에 칠한들 허공이 물들 것이며
칼로 물을 끊은들 물이 끊어지랴.
사환의 마음이 물과 허공 같다면
어떤 물건을 대한들 좋고 싫음이 있겠는가?
-작자 미상의 선사

이달의 명상

'내 나이 육십에 산으로 들어와 암자 터
를 잡았다. 암자를 다 짓고 나서 요양을 하
고 지내면서, 그렇다고 세상살이를 지나치
게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다. 암자 서쪽
아가위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이름을 따
서 암자 이름을 지었는데, 아가위란 맛이
좋다고 이름난 과일도 아니고 배나 밤에
비하면 부끄럽
게 생겼다. 배
는 그 시원한
맛 때문에 칼
에 베어지고
밤은 그 단맛
때문에 입에
씹히게 되니,
설혹 배와 밤
에게 식성을
부여해서 그
들 스스로 쓸
모없는 곳에
있게 해달라
고 해도 그것
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저 아가위는 돌베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

어서 비록 향기는 있어도 맛이 짝다. 억지
로 씹으려 해도 향기로는 배를 채울 수 없
고 짝은 맛은 입을 상쾌하게 할 수 없으니,
삼척동자라도 이것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
래서 주렁주렁 가지에 매달려 스스로 만족
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아! 사람은
이는 것 때문에
자기 뼈를 고
단하게 하고
아가위는 짝
은맛 때문에
자기 몸이 편
안하니, 암과
짝은맛 중에
어느 것이 참
된 것인가.
나는 암이 적
기 때문에 아
가위와 이웃
이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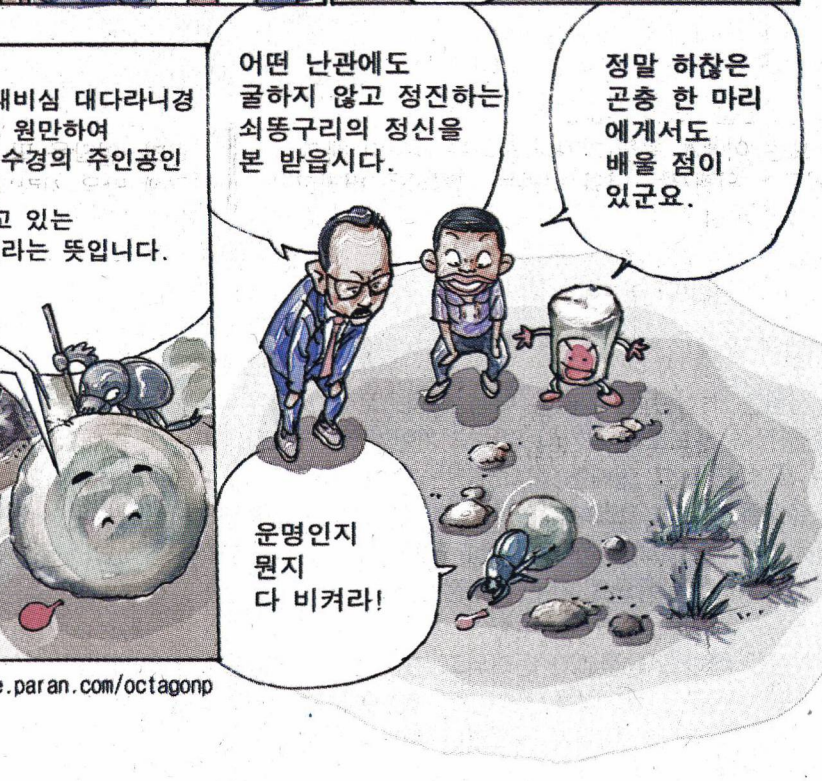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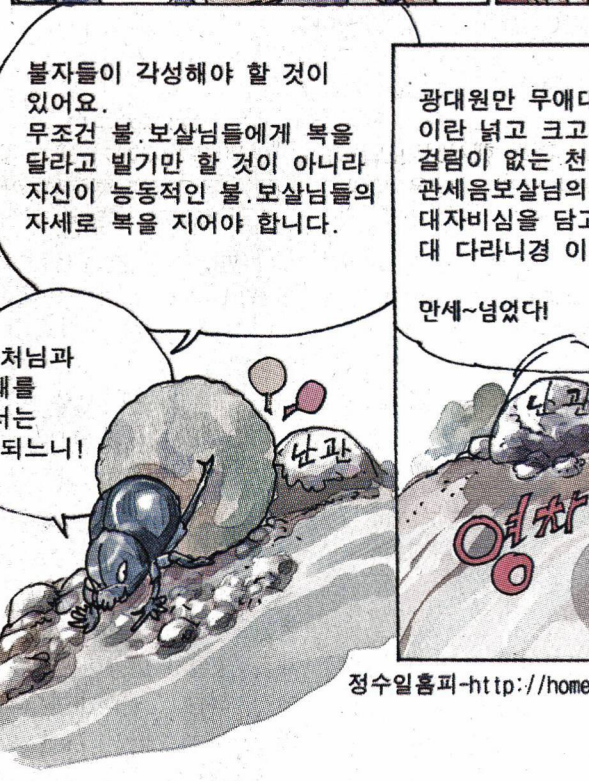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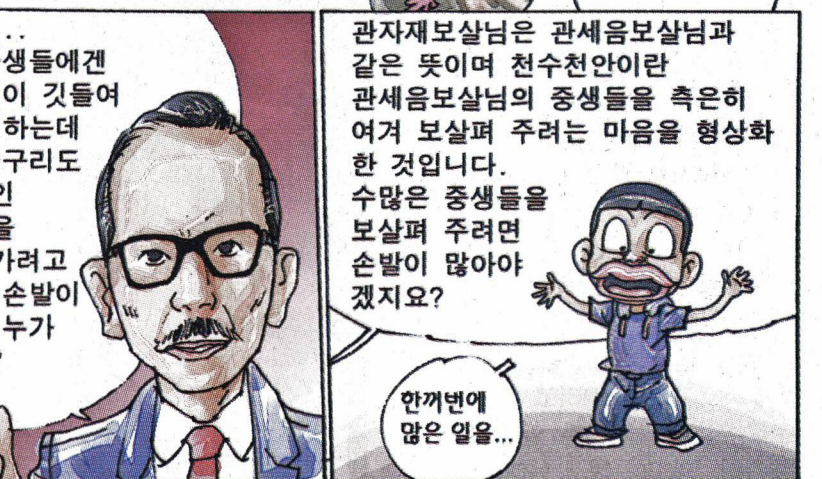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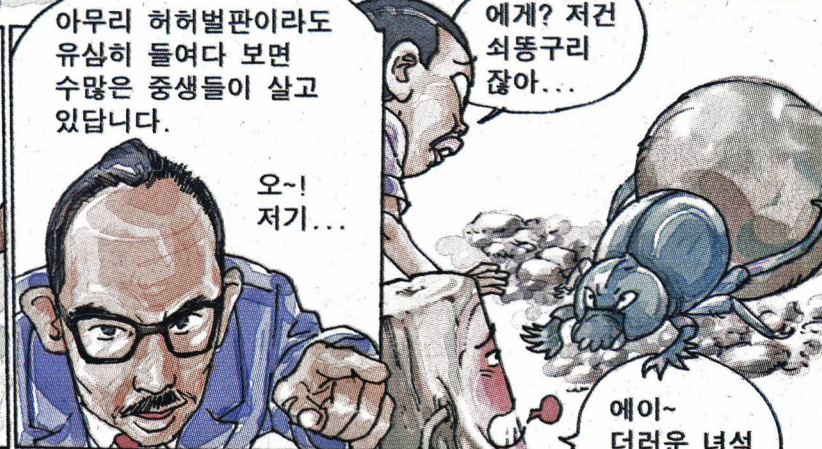
-중국 유엄(有嚴)선사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광고

~천수경면 제11화~



글:그림/정수일



정수일 홈페이지-http://home.paran.com/octagonp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
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
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쁨을 이룰 수 있
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회원

-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주요사업내용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
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
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
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원승정사
중앙총회의 회장

2007년 정해년 새해아침의 찬란한 태양이 사바세계에 밝은 빛을 발하였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단과 교도보살님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새해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해년은 돼지의 해입니다. 다산(多産)을 의미하는 해인만큼 행복과 지혜가 많이 일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과 지혜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삶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좀더 부드럽게 대했으면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에서 진심과 원망심은 자연 사라지게

희심을 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히 원망심과 진심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체중생 보기를 그 자식과 같이 하여, 중

품은 일이 없고 오직 겸양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며, 일체중생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즐겁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소원성취하시고 좋은 불법(佛法)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홍.

행복과 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길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수행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심과 원망심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없어지지 않고 더욱 숫구치기만 합니다. 반대로 환

생으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은 악한 마음으로 못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화내거나 원한을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나혼자만의 성불에 있지 않습니다. 자타 모두가 성불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

병술년이 지나고 정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지만 새로운 마음가짐도 중요하나 오늘 새해 아침에는 오히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는 것이 더욱 소중한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잘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끝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시작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침이 좋지 않으면 그 시작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시작하여도 자심삼살인 것은 우리 중생들



연동원 전수
서울경인 교구장

유종의 미를 살려 새로운 각오

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다짐할 것은 새로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해에 못다한 것을 올해에는 완성하고, 지난 해에 부족하고 잘못되었던 부분을 더욱 다듬고 완성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한 시작이라고 각

오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초발심시변 정각이라 하였습니. 처음 발심하는 그 지리가 바로 바른 깨달음을 얻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이어지고 지속될 때에 우리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불공을 열심히 하시고 한 해의 마음공부를 새해불공할 때와 같이 지속한다면 금년 정해년은 넉넉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



지역이 함께 하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홍.

성도합시다. 병술년 새해불공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승단의 스승님, 각자님 그리고 보살님들 지난해에는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셨는지요? 요즘 새벽에 서원당에서 부처님께 향 공향 올리고 염송하면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처럼 추운 계절에 한해의 끝과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 이루어짐은 새해에도 부처님 말씀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몸에 날카로운 칼이 와 닿은 것처럼' 수행하라는 것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올해도 우리는 출세간적 도의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세간적 이익을 위해 불공하고 서원할 것입니다. 하



지광 전사
대구·경북 교구장

새해에는 큰 서원을 발하소서

지만 그 근본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이 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세간적 이익이나 출세간적 도의 성취도 중도를 닦으므로 가

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올해는 시작부터 큰 서원을 발하소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서원을... "올해는 모든 생명있는 존재들이 괴로움과 재난에서 벗어나기를 올해는 모든 이들이 원하는 일 다 이루어지기를 올해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올해는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합장 발원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음마니반메홍.

복(福)과 행운을 선사하는 정해년 돼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해년 한 해에는 고통과 괴로움, 시기와 질투, 불운을 해탈하여 행복과 웃음, 화합과 단결, 삶의 여유로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각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수행의 목표도 자비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은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변환경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일 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차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여유로움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대원 전사
부산·경남 교구장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세상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들이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아름답듯이 마음속에 잡념만 없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마음은 인생이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 찾아온 망상과 집착, 아집의 굴레를 벗어나 자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부는 갈대요, 한 순간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이요, 순간 반짝이는 번개불입니다. 찰나의 순간, 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마음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기에 기약없이 찾아온 번뇌의 허망된 망념에 자신의 마음자리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는 수행을 통해 해탈의 기쁨, 행복의 열반을 증득해야 합니다. 정해년 한 해동안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비한 마음, 참 나를 찾는 마음 수행으로 행복한 나 날이 영속되시기를 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정해년 돼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냅니다. 그 결과는 바로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는 삶이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라는 벽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깨침



밀공정 전수
충청·전라 교구장

모두가 '하나' 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

입니다. 그 벽이 깨짐으로 분리, 대립되던 나와 이웃, 나와 세계는 비로소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인 세계를 사는 삶이 다름 아닌 자비의 삶인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다 하는 생각이 없는 공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인 샘으로부터 샘솟는 물질입니다. 존재의 실상인 '하나'에서 나와 남이 틀이 아니므로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

라 내가 나를 돕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허공을 날 때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상을 남기지 않는 청정한 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체대비의 실천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요, 우리의 세계를 정토로 바꾸는 길입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도 실은 동체대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깨침과 자비, 지혜와 자비는 마치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더불어 있고 하나인 존재의 실상에 눈뜨는 깨침과 지혜가 있으면 동체대비의 삶 또한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뜨고 일체의 모든 생명을 위한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하여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성도합시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 황 사

주교: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62)676-0744

혜 정 사

주교: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43)256-3813

만 보 사

주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42)255-7919

백 월 사

주교: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흥 국 사

주교: 전수 밀공정
☎ (063)224-4358

충청·전라교구 일동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탄신 100주기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을 이끄셨고,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숭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약력과 사진, 유고(遺稿) 등을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현대한국밀교의 개척자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1907.1.29~1980.9.8)

현대한국밀교의 개척자이며 정통 밀교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셨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 정우(禎佑)로 개명하셨다. 어려서부터 비범하여 한 번 보고들은 것은 잊지 않으셨다고 한다.

유년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시고 개화의 물결과 함께 현대 고등교육을 마친 후 잠시 관공과 교육계에 종사하시다가 이후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준제관음법 발굴 시행

6.25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회당 조사의 입적 후인 1963년부터 진각종 총인의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음화성전> <총지법장> 등을 편찬하시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하셨다.

이후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시던 중 진각종의 현행수행체계에 오류를 발견하고 <준제관음법>을 발굴, 이의 시행을 시도했으나 회당 개조 친인척의 종교의적인 곡해와

밀교에 무지한 일부 승직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한국의 현대밀교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른바 '준제파동'의 와중에서 진각종을 떠나 은거하시면서 밀교의 비범으로 정진하시던 중 1972년 4월 7일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관세음보살의 몽수를 받고 교상확립에 착수하셨다.

그 해 8월 21일 법신대일여래의 가 지력과 원정대성사의 영명하신 통찰력으로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밀교의 기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성사께서는 오랜 은거의 수련을 거두시고 정법홍포를 발원하셨다.

마침 성사의 행방을 찾아 우왕과 왕하던 진각종의 중진승들과 식견 있는 제자들이 입교개종을 간청함에 따라 밀교중흥의 결심을 굳히신 성사께서는 1972년 12월 24일 드디어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총지종의 창종 이후 원정 대성사께서는 진각종에서의 교리적, 행정적 좌오를 반성하시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시면서 본산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셨다.

대성사께서는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셨을 뿐 만 아니라 총지종과 진각종이라는 현대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의 산파 역할을 하심으로 1980년 9월 8일 입적하실 때까지 한국 현대밀교사의 수립에 견인역할을 하셨다.

한국 밀교사 수립 견인자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와 현대 한국밀교사의 궤적이 일치한다고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원정대성사의 사상은 <종조법살집>에 잘 나타나 있으며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유바라밀다경>을 번역하여 발간하셨으며, 이 밖에도 대장경의 핵심을 모은 <불교총론>등을 편찬하셨다.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밀교교리에 정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 운영에 대해서도 한국불교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기셨는데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종단의 재단법인화이다.

이처럼 원정대성사의 밀업국토건설과 정통밀교의 수립에 대한 대원(大願)은 총지종이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양계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관세음보살의 본심 '옴마니반메훬'의 공덕

대승장엄보왕경에 이르시되 관세음보살 본심을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길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니라. 만일 이 주문을 염념불망하는 사람은 천재만액이 다 소멸하느니라. 대승장엄보왕경에 설함과 같이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있는 곳마다 부처와 보살을 이루며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의 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을지며,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얻으면 탐진치 삼독에 애착함이 없을 것이요 또 이 본심을 머리에 이거나 몸에 지닌 자도 또한 탐진치 삼독병에 물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와 같이 거저나 지니는 사람의 몸과 손으로 하는 바와 눈으로 보는 바의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위(位)를 얻어 영영 다시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고생을 받지 아니하리라.

삼독병에 물들지 않아

무량수 대가님이 설하시되 이 본심을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방생(放生) 한번 한 공덕과 같고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五逆罪)를 멸하고 날마다 백여덟번을 생각하면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끊임없이 생각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을 친근하고 놀래고 두려움이 나지 아니하며 횡사(橫死)에 이르지 아니하며 좋은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며 의식(衣食)이 갖추어 넉넉하며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나는 곳마다 관세음보살께서 자재(自在)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니 천겁(千劫) 가운데라도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육자 본심의 공덕이 비할 데 없느니라. 백용성(百龍城) 정사가 관세음보살 본심의 공덕을 설하되 이 본심주(本心呪)의 공덕을 말하자면 허공으로 입을 삼아 가지가지 공덕을 칭찬하여도 항하사(恒河沙) 미진수(微塵數) 중의 하나 만큼도 말할 수 없느니라. 만약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사 큰 불에 들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큰 물에 빠진 바 되더라도 곧 얕은 곳으로 얻을지며 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 가운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풍파의 난에서 해탈함을 얻을지며 설사 사람이 살해를 당할 때나 또 죄가 있거나 하여 만약 수갑(手甲)·항쇄(項鎖)로 그 몸을 얽매더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다 해탈하는 은혜와 구원을 얻느니라. 심인 옴마니반메훬를 송(誦)하고 염(念)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혼련이다. 옴은 희사(喜捨), 마는 계행(戒行), 니는 하심(下心), 반은 용맹(勇猛), 메는 묵념(默念), 훬은 지혜(智慧)니 믿고 행하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며 잊지 않고 묵념하면 천재만액(千災萬厄)이 소멸하느니라. 이 심인(心印)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라 만법(萬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만사만리(萬事萬理)가 구비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육자 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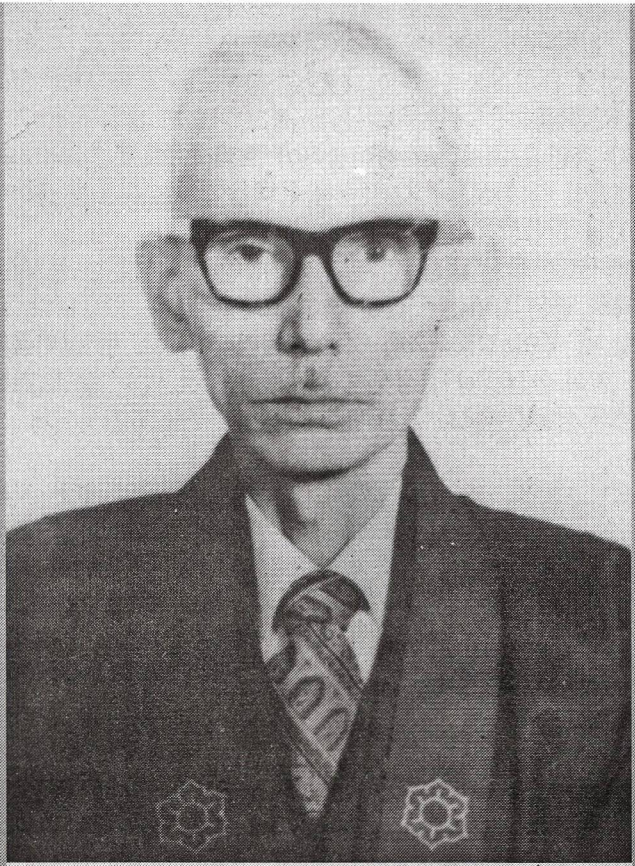
은 백미와 같아서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죽을 목숨 한번 살려 준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를 면하며 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으며 뱃속에 있는 벌레 등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의 마음을 얻나니 이것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 외도의 사술이 아니니라.

보살심 증득이 본심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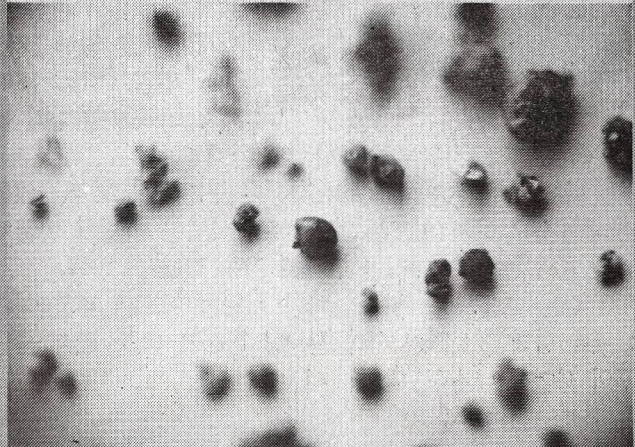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六行)은 제일 지혜(智慧), 제이 묵념(默念), 제삼 용맹(勇猛), 제사 하심(下心), 제오 계행(戒行), 제육 희사(喜捨)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심인불교(心印佛敎)에서 실행(實行)하고 오는 것은 불경(佛經)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이니 여섯가지 실천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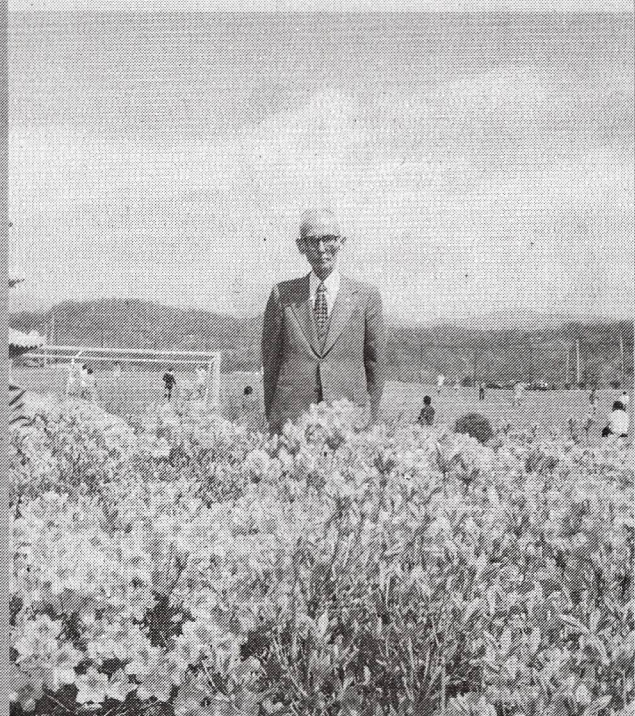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맹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하심(下心)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嗔心)을 고치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상과 악마행동을 고치고, 희사로써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되느니라.



원정 대성사.



원정 대성사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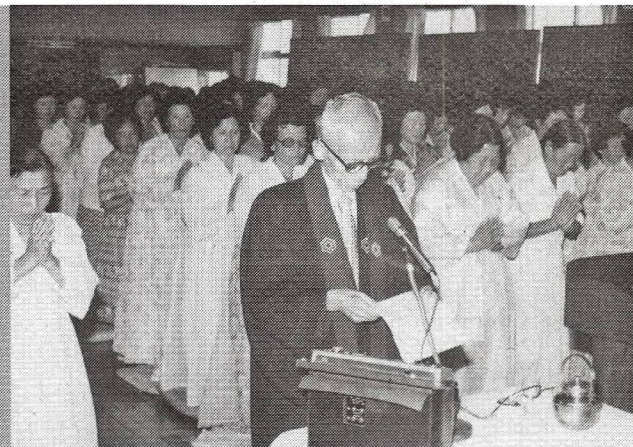
봄날 어느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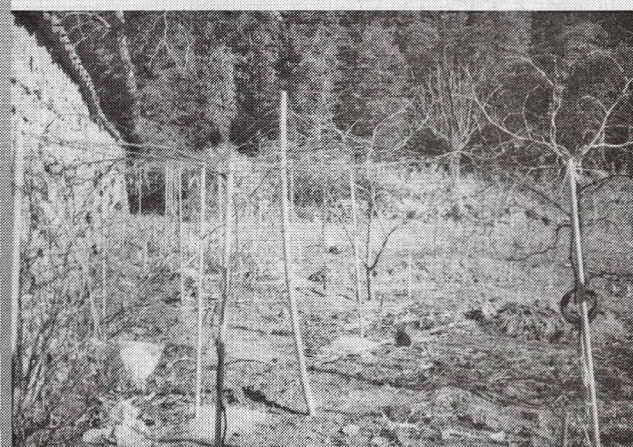
총본산 총지사 건립불사



총지사 건립 초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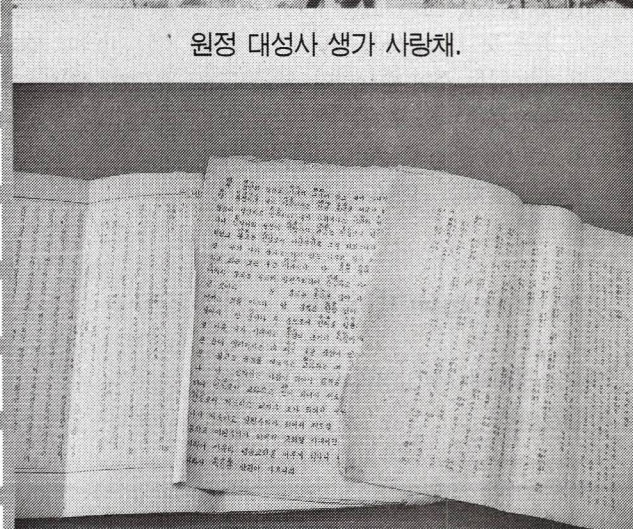
불사 의례 교정.



원정 대성사 생가 터.



원정 대성사 생가 사랑채.



원정 대성사 유고.



밀양 농중중학 재직시(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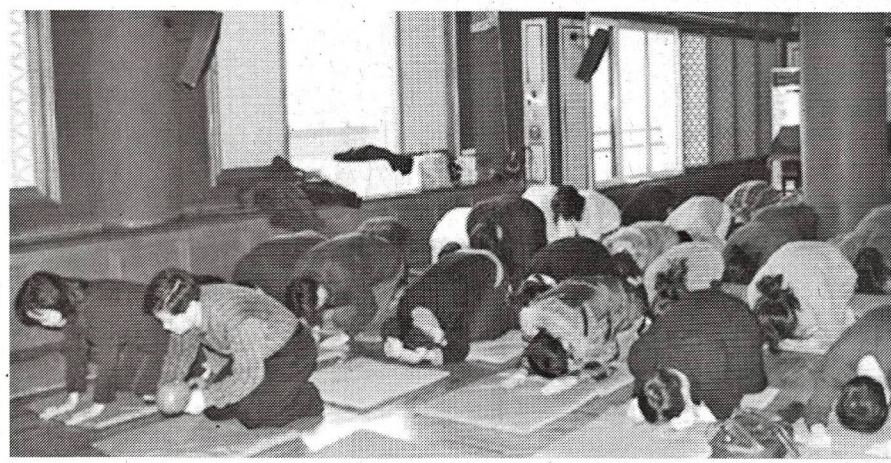


원정 기념관.



현대불교신문 폐간 위기

일단 6개월간 유보하기로



◇현대불교 직원들이 한마음선원에서 108참회를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이사장 해원 스님)는 지난 12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해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 청산 업무를 위임 받은 모 회계법인이 현대불교신문사를 방문하는 등 청산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회 회의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적자'와 '노조가 신문사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7일 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 결정은 교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은 큰 허탈함과 상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불교신문의 한 기자는 "신문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한마음선원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래서 직원들은 110여 명이었던 직원 수가 40여 명으로 줄어드는 구조조정을 감수했고 더불어 노조 측에 제시하기도 했었다"며 이 같은 이사회 회의 결정에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이어 "신문사 경영 위기는 신문사를 운영해왔던 전 사장의 부실경영과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사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끌려왔던 직원들 모두에게 있다"며 "하지만 일방적인 폐간은 이런 책임을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대불교신문사를 폐간하겠다는 소

식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2월 14일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이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는 불교의 공공자산이자 불자들의 자양분이기도 하다"며 "폐간은 곧 법인체제를 의미하며 그것은 현대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송두리째 후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이타회'도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불교발전의 지대한 공이 있는 교계 언론사의 폐간을 접하고 충격과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발로 뛰는 기자들과 관계자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며 교계 언론사 폐간을 막고 회생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사는 12월 23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불교>의 폐간을 6개월간 유보하기로 했다.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 스님 등 주주 13명이 참석한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현대불교신문 폐간을 6개월간 유보하는 대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신문사 운영을 맡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태고종 제2 종로시대 개막

120억 투입 지상 4층 1천 6백평 규모



태고종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은 신촌 봉원사·성북동 시대를 마감하고 40여년 만에 종로로 돌아왔다.

태고종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이 12월 초 완공됐다. 착공 3년만에 완공된 전승관은 연건평 1천 6백여 평에 지상4층·지하 3층으로 이뤄져 있다. 아직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남아있어 전승관 개관법회는 년 초 봉행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총무원부터 우선 입주할 계획이다.

태고종 자체재원 60억원과 국고지원 60억원 등 총 1백20억원이 투입된 전승관은 △불교문화예술 상설공연장 △불교문화재 및 예술품 전시관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관 △대륜불교사상연구소 등을 갖춘 포교와 교육을 겸비한 불교 종합문화센터로 우뚝 설 전망이다.

운산스님은 기자감담회에서 "전승관은 태고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불화·단청·범용법패 등 우수한 불교문화의 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전승관 내에 불교예술전시관

및 교육관을 설치해 후학양성에 주력하고 정신문화창달을 통해 도시인의 정서 함양과 외국인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산스님은 또 "전승관이 들어선 법륜사는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의 전수이자 종합불교문화의 성지"라며 "중도의 화합과 결집을 이끄는 중심도량으로 삼아 종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목적 불교종합문화센터로 사용될 전승관의 지상1층은 전통불교문화의 전승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범교교육 및 영산재 시연·단청·불화 등 불교전통 관련 문화자료 전시와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타종교·해외불교 문화와의 교류 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보 다이제스트

▶깔끔하게 매니큐어를 칠하려면

오른손잡이는 오른 손에, 왼손잡이는 왼 손에 매니큐어를 칠하기 어렵다.

이 때는 주로 사용하는 쪽에 야구 공을 쥐고 손목을 테이블 위에 댄 다음 칠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끝이 안정되어 깔끔하게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다.

▶깜짝 감기 응급 처치법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축축한 양배추의 바깥 잎을 머리에 씌운다. 양배추가 바짝 마를 때까지 썬 뒤면 기화열이 발생하여 열이 내려간다. 머리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효과적인 응급 처치법이다. 사정이 가능하면 병원에 가는 것을 잊지 말 것.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 반죽하기

햄버거나 만두 속을 만들 때, 채소를 넣기 전에 소금 물을 약간 넣어 반죽하면 소금이 고기의 맛있는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주어 재료의 맛이 한층 살아난다.

▶고기를 동일한 두께로 자르려면

고기를 동일한 두께로 썰고 싶을 때는 우유 팩을 사용하기 쉬운 크기로 잘라 고기를 써서 조금씩 비커가며 자르면 된다. 우유 팩은 방수 가공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고기의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 위생적이다.

▶감자 썩이 안나게 보관하려면

감자를 썩이 나지 않게 보관하려면 감자와 사과를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배출되는 에스테르가 감자의 발아를 늦추어 주기 때문에 구입한 감자를 한 달 정도는 썩이 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생선 비린내 제거하기

손에 생선 비린내가 배었을 때 원두 커피를 이용하여 손을 닦으면 천연탈취제 역할을 한다. 생선을 손질한 도마도 세제로 씻은 뒤 커피 찌꺼기로 문지르면 냄새가 제거 된다.

▶프라이팬의 기름 때 제거하기

기름 때가 묻은 프라이팬과 냄비는 쓰고 남은 티백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지르면 깨끗하게 닦인다. 세척이 끝나면 티백은 그대로 버리면 되므로 간편하다.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스님)는 12월 8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제2회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의 불서 10'으로 선정된 <길 위의 삼국유사> <범종,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

엄> <불교, 이종종교로 읽다> <붓다, 나를 흔들다>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생명과학과 선> <소 찾는 아이> <인간학불교> <인도불교사 1.2> <절수행입문> 등의 저자와 출판사 대표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대한민국지킴이 불교도총연합회

출범이후 첫 송년법회 봉행



대한민국지킴이 불교도총연합회는 법당에서 금강선원 해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출범이후 첫 송년대법회를 봉

행했다.

해거스님은 법문에서 "구주(九疇)는 3천년전 중국에 있었던 아홉가지 대법인데, 이 중 만물의 순환이치인 오행(五行)을 잘 파악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거스님은 이와함께 수행사덕(修行四德)을 열거하며, 신구의 삼업을 다스릴 때 일정기한을 정해 노력하면 용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지킴이 불교도총연합회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인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단결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지킴이 불교도총연합회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예비역 군장성불자가 주축이 되어 창립법회를 가졌으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남산한옥마을 옆 충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김정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충지도량에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 삼밀수행 도량 현대밀교의 선구자-불교충지종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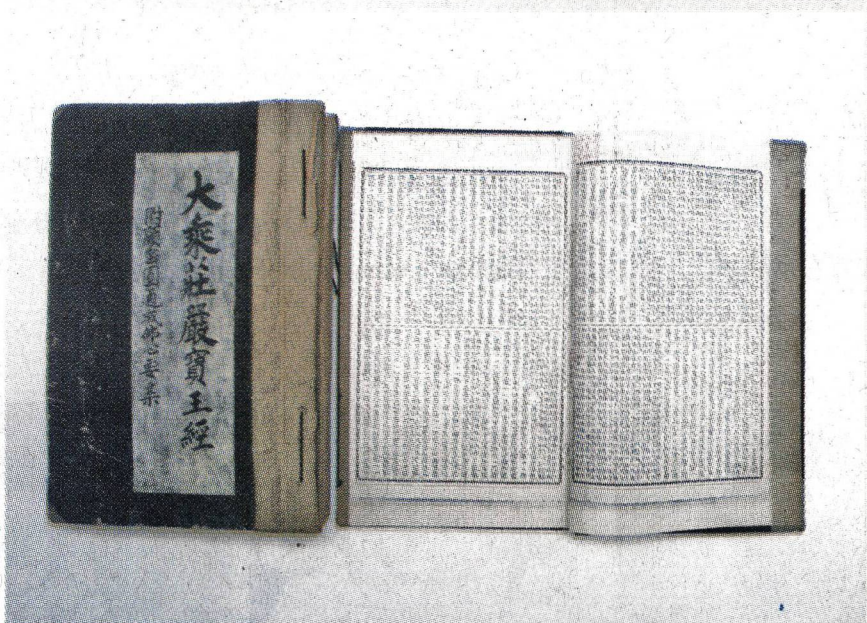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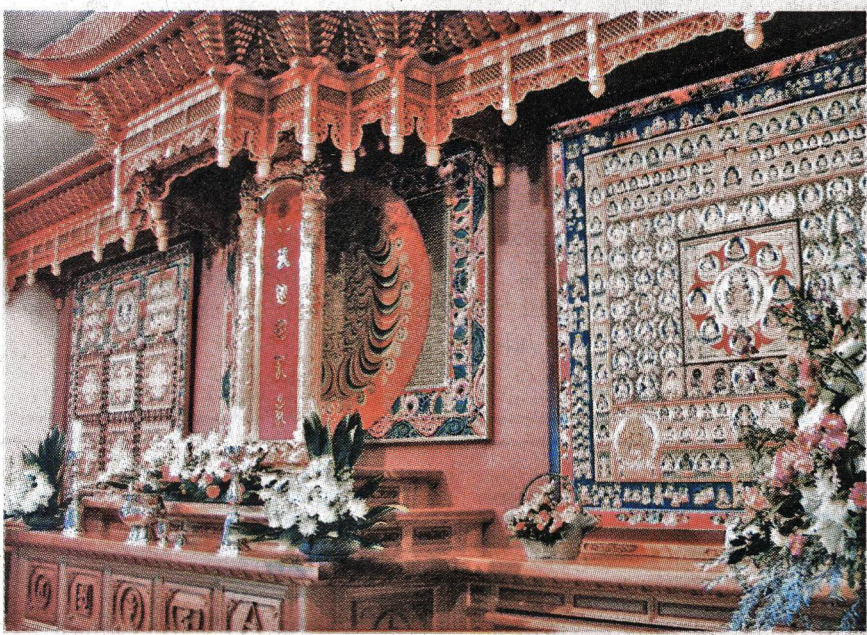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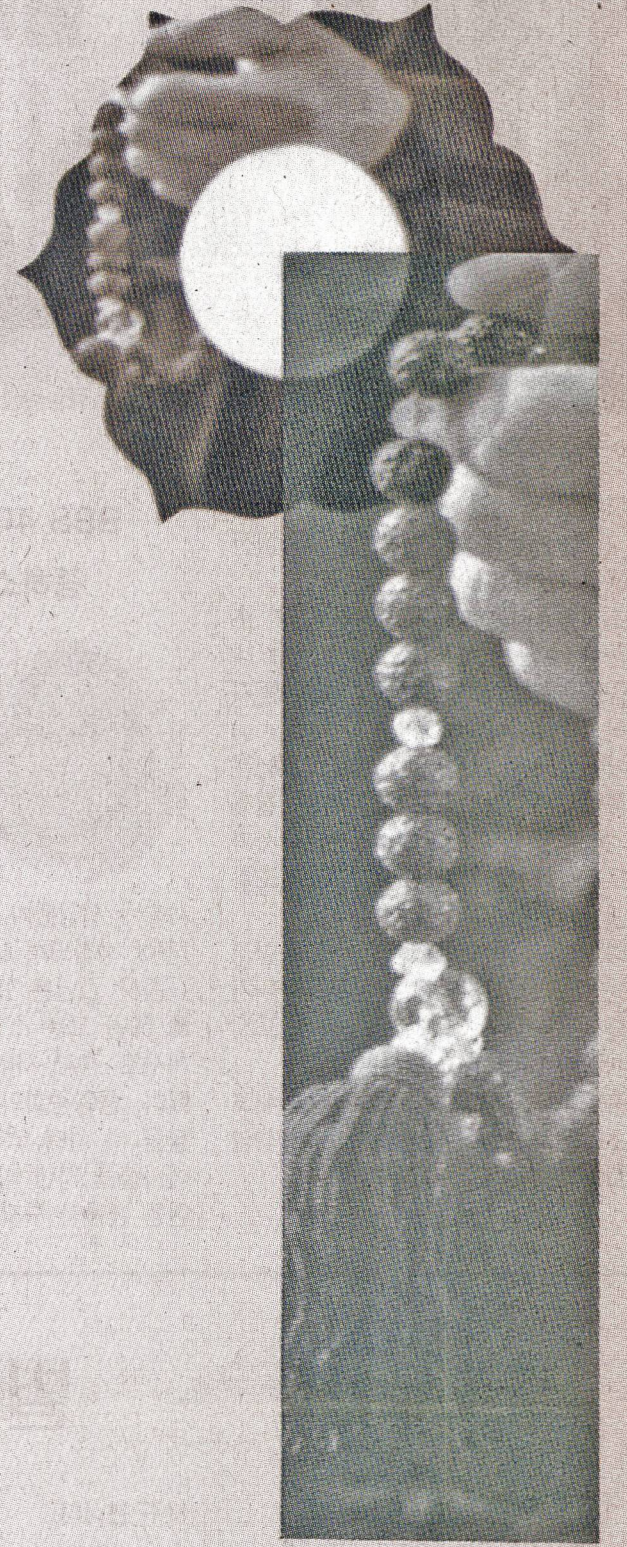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확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지종보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www.Chongji.or.kr